

전남 다도해서 지갑 연 관광객들 “재방문은 글썄”

2023 국립공원 여가·휴양 실태조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타지역 방문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지만 여행비용과 시설·탐방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재방문 의사가 전국 국립공원 중 하위로 집계됐다.

9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의 '2023 국립공원 여가·휴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다도해 국립공원(여수·고흥·완도·진도·신안 등)에 방문객 중 경기지역 탐방객이 27만~39만명에 달했다.

광주·전남에 있는 4개 국립공원(무등산, 지리산, 월출산, 다도해 해상) 중 무등산의 경우 광주 지역 탐방객 유입이 대부분이었으며 지리산은 산청·하동·함양군이 있는 경남에서, 월출산은 광주·전남 탐방객 유입이 많은 것과 비교된다.

여수·완도·신안 등 방문객 중 경기도민 27만~39만명 달해 주변 관광지도 관심... 지리산·무등산·월출산은 '당일치기' 여행비 등 만족도 낮아 재방문 의사 '국립공원 중 하위권'

다도해는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관광이 활성화 된 지역에 걸쳐 있어 국립공원 방문 전·후 연계관광 비율도 60%에 달했다.

다도해의 경우 체류 기간도 지역의 다른 국립공원보다 높았다.

다도해는 1박 2일 이상 머무는 비율이 60%에 달했고 2박 3일 체류 비율(26.2%)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탐방객 유입 비율이 높은 무등산은 당일방문이 88.5%로 전국에서 당일 체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도해 탐방객들의 방문 목적 역시 친목도모(42.6%)와 자연경관·문화재 감상(42.4%)이 대부분이었고 방문 시 경관감상(41.4%)과 탐방프로그램 및 체험활동(30.9%)을 주로 했다.

순천만 남도 삼백리길, 여수 돌산읍 생태탐방로, 완도 신지 명사갯길, 고흥 남도 명품길 미르마루 길 등의 체험활동이 인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공원을 방문한 후 여행비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무등산(3.87점)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다도해(3.46점)는

경주(3.41점)와 태안(3.41점)에 이어 전국 국립공원 23곳 중 하위 3번째를 기록했다.

무등산과 지리산이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탐방 만족도가 전국 국립공원 중 2번째로 높게 나타난 데 반해 다도해는 시설 이용 만족도가 태안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재방문 의향 역시 무등산과 지리산은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지만 다도해는 재방문 의사가 거의 없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공원별 평균 여행회비를 비교해보면 무등산이 7만 5627원, 다도해가 19만 5211원으로 12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숙박비는 무등산이 6만 8113원, 다도해가 8만 5900원이었으며 식·음료비는 다도해가 7만 1761원, 무등산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4만 4308원으로 집계됐다.

교통비도 무등산은 3만 625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다도해는 7만원으로 한라산과 설악산 다음으로 높았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관계자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은 주로 바다로 이뤄져 있어 등산보다는 경관 감상이나 탐방프로그램을 원하는 탐방객들이 많다"며 "다만 다도해가 육지와 떨어져 있어 조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교통비, 식·음료비가 타지에 비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의 국립공원에서는 20대의 등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출산의 탐방객 연령대는 50대(22.9%)가 가장 높았으며 0.3% 차이로 20대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지리산과 무등산 역시 5060세대를 이어 20대가 주로 찾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6·10항쟁을 기억하며 10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광장에서 '6·10민주항쟁 3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6·10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중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교사 2명 중 1명 “업무 중 갑질 피해”

전교조 전남지부 652명 설문

전교조 전남지부가 2024 갑질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 이내 이른바 갑질 피해를 경험한 교사가 50.6%이며, 이중 유치원 교사와 저연차 교사가 갑질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에는 65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다른 직원 앞에서 과도한 질책(41.6%), 연차 휴가나 병가 등에 대한 1~2일 전 구두 결재 강요나 이유 없는 거부(36.0%), 공식 석상에서 '야·나' 등 반말(19.8%), 불필요한 회식·야외활동 참여(27.9%) 등 경험자도 많았다.

갑질 주체는 교감·교장 등 관리자(62.6%), 동

료 교사(16.0%), 학부모(14.0%) 등 순으로 꼽혔다.

대처 방법(복수 응답)은 '혼자 감내'가 78.4%로 가장 많았으며 동료와 상담 51.3%, 관리자와 상담 15.7% 등이었다.

갑질 신고(3.9%),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2.6%), 교육청 상담(2.6%),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0.4%) 등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언어폭력, 모욕과 명예훼손, 독단적 학교운영, 직무상 권한 남용 등 직접 겪거나 목격한 25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한 비위와 갑질이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감사관실의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지” 함평군민 법적 대응

‘한수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 중단 요청

함평 군민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단체)에 따르면 이날 함평지역 한빛 1·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빛 1·2호기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광주지원에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주도가 아닌 군민들의 주도로 진행되며 소송에 필요한 모

든 비용도 군민이 자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당사자로 참여한 군민들도 9일 500여명을 넘겼고 이날 수백명이 추가로 참가를 신청해 군민들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을 담당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은 광주지법이 아닌 대구지법으로 이뤄지게 됐다.

군민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11일 오전 10시 30분께 함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함평군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1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에 초안을 제출하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밝기 시작했다.

현재 지자체 초안 검토,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함평 주민들은 “초안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주민대피·보호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륜차, 교통안전에 가장 큰 위협”

광주경찰, 시민 1만3325명 설문

광주 시민은 교통안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꼽았다.

1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교통안전 설문조사 결과 이륜차가 32%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28.8%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시민 1만 3325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실시됐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보행로 확보(21%)와 무단횡단 금지시설(20%)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로는 보행로와 차도 분리(28.5%)와 학교 내 승차 구역(22.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질문에는 보통(49.6%), 안전하다(36.8%), 위험하다(13.6%) 순으로 응답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의 응답 1위는 모두 ‘도로 환경’이었다.

근절해야 하는 교통법규위반은 음주운전(29.2%)이 가장 높았으며 이륜차 법규위반(17.7%), 신호위반(14.4%) 순이며, 교육 홍보가 필요한 대상은 이륜차 운전자(36%), 고령 보행자(16%) 및 운전자(13%) 순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